

사계절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히어로

광주일고 투수 정찬현



“변화구 잘돼 쉽게 던졌죠”

“변화구가 의외로 위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교특급’ 전태현(군산상고 3년)과의 맞대결에서 완승한 광주일고 에이스 정찬현(18·187cm 88kg·사진)은 11일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직구와 변화구의 제구력이 잘 돼 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며 밝게 웃었다.

정찬현은 “대통령배 대회 때는 변화구의 제구력이 떨어져 고전했는데, 그동안 약점 보완을 많이 했다”면서 “대통령배에 이어 무등기 대회도 꼭 탈환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145km를 날라드는 직구와 예리한 슬라이더가 일품인 정찬현은 대학보다는 곧바로 프로에 진출해 최고의 선발 투수가 되는 게 목표다.

2008년 KIA의 신인 1차 지명을 받지 못한 정찬현은 “연고구단에서 1차지명을 받지 못한만큼 2차지명에선 LG나 두산 등 수도권 팀에서 뛰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령배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힌 정찬현은 모두 4경기에서 19.2이닝동안 20탈삼진을 속아내며 11피안타 5자책점으로 3승을 챙겨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1일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제14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원주고-부경고 경기. 2회초 볼넷으로 진루한 원주고 김성환이 정지민의 내야방백때 홈으로 쇄도했으나 아웃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찬현 특급 피칭...광주일고 16강행



제14회 무등기 고교야구 (대회 1일째)

‘야구명문’ 광주제일고와 ‘고교 특급에이스’ 전태현이 버티고 있는 군산상고를 누르고 16강에 선착했다.

광주일고는 11일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 14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 군산상고와의 개막전에서 선발 정찬현의 호투속에 힘입어 6-2로 완승했다.

‘부산대표’ 부경고도 ‘강원대표’ 원주고를 3-1로 누르고 16강에 합류했다.

광주제일고 6-2 군산상고

실책 3개가 차세대 KIA 에이스를 올렸다.

연고 프로구단인 KIA가 2008년 신인 1차 1지명으로 낙점한 군산상고 에이스 전태현은 2회 2사 1루에서 두 타자를 연속

7.1 이닝 무실점 쾌투...군산상 실책으로 자멸

부경고 이광진·박태정 황금계투...2차전 진출

볼넷으로 내보내며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전태현은 다음타자 정승인을 3루 앞 땅볼로 유도하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는 듯했으나, 3루수 김현철의 수비 실책으로 2점을 내주고 말았다.

4회에 3루수의 연속 실책으로 무사 2, 3루의 위기에 몰린 전태현은 상대 정승인의 희생플라이와 허경민에게 1타점 적시타를 헌납, 2점을 추가 실점했다. 6회에 마운드를 내려간 전태현은 5이닝동안 5피안타, 4탈삼진, 4실점(비자책점)을 기록했다.

광주일고는 4-0으로 앞선 6회 바뀐투수 왕민수를 상대로 1사 2루서 정승인의 좌중간을 깨는 2루타로 1점을 추가한 뒤 이어진 2사 만루에서 이철우의 밀어내기 몸에 맞는 볼로 1점을 더 보탤었다.

군산상고는 6회 상대 바뀐투수 김경열을 상대로 6회에 2점을 뽑아내며 추격의 불씨를 살려냈으나, 다시 마운드에 오른

정찬현의 호투에 밀려 더 이상 만회점을 뽑지 못했다. 광주일고 에이스 정찬현은 7.1이닝 동안 4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으로 팀 승리를 견인했다.

부경고 3-1 원주고

올해 재 창단 후 전국대회에 첫 참가한 부경고(구 경남상고)는 3회말 상대 2루수의 실책과 박진우의 우전안타를 묶어 먼저 1점을 뽑았다. 이에 원주고도 4회 선두타자 박지용의 볼넷과 김성환의 2루수 옆으로 빠지는 안타로 만든 1사 1, 3루서 우원일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얻어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기선을 잡은 부경고는 4회에 또 힘을 냈다. 무사 1, 2루 찬스에서 박진환의 보내기 번트와 이상호의 볼넷으로 1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계속된 공격에서 권민호의 찬구같은 스윙스 번트로 결승점을 얻

어졌다. 부경고는 8회에도 1사 2루서 상대 바뀐투수 임광훈의 폭투 2개와 볼넷 1개로 1점을 더 달아냈다.

부경고 1학년 좌완투수 이광진은 선발로 나서 4.2이닝 3피안타, 4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고, 이어진 3학년 박태정은 4.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승리를 지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의 무등기 야구

인창고-구미전자공고(10시)
부산공고-동성고(12시 30분)
KBSN 중계)
공주고-춘천고(15시)

■ 내일의 무등기 야구

김해고-효천고(10시)
상원고-안산공고(12시 30분)
장흥고-진흥고(15시)
(〈앞쪽이 선공·1루쪽 더그아웃·이상 무등경기장〉)

■ KIA 급주의 프로야구

마운드 안정세 삼성·LG 상대 탈꼴찌 노린다

“연승 모드로 꼴찌 탈출한다.”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꼴찌’ KIA가 2연승을 발판으로 연승모드로 돌아섰다. 지난주 강호 SK를 상대로 2승을 수확한 KIA는 이번 주 삼성(12~14일·대구)과 LG(15~17일·잠실)를 상대로 꼴찌 탈출을 노리고 있다.

11일 현재 1위 두산과 8게임차, 7위 롯데와 3.5게임차 8위인 KIA는 토종 에이스 김진우의 복귀와, 신인 오준형의 가세로 마운드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우선 윤석민-스코비-김진우-신용운-오준형으로 구성된 5선발진이 모처럼 짜여졌고, 미들맨 로드리게스와 정원, 마무리 한기주까지 뒷문이 강화됐다. 개막 이후 가장 안정된 마운드가 형성된 것.

하지만 변수는 있다. 바로 타선이다. 최희섭에 이어 홍세완과 김원섭이 근육과열로 이탈했다. 현재 2군에 내려가 있는 이재주와 김중국이 복귀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얼마나 큰 힘을 보탤 지는 미지수다.

다만 새롭게 가세한 타선의 집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게 반갑다.

2루수 손지환은 지난 9일 3점 홈런 등 혼자 4타점을 올렸고, 이종범 대신 우익수로 출전한 김경진은 10일 2타점짜리 동점 적시타를 날려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은 김주형도 4경기 연속안타를 터뜨리고 있다.

KIA는 삼성과의 3연전에 1~3선발을 투입, 모처럼 올라탄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첫날엔 ‘특급 에이스’ 윤석민이 선발 등판하고, 이어 ‘용병’ 스코비, ‘돌아온 에이스’ 김진우 등이 줄줄이 마운드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9일 SK전에서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프로 데뷔 첫 승을 신고한 오준형도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어 주말 LG전서 좋은 활약을 기대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11일현재)

| 순위 | 팀 | 승 | 패 | 무 | 승률 | 게임차 | 연속 |
|----|-----|----|----|---|-------|-----|----|
| 1 | 두산 | 29 | 23 | 1 | 0.558 | - | 1승 |
| 2 | 한화 | 28 | 23 | 1 | 0.549 | 0.5 | 2승 |
| 3 | S K | 27 | 23 | 4 | 0.540 | 1.0 | 2패 |
| 4 | 삼성 | 25 | 24 | 3 | 0.510 | 2.5 | 1패 |
| 5 | L G | 24 | 25 | 2 | 0.490 | 3.5 | 2패 |
| 6 | 현대 | 25 | 27 | 0 | 0.481 | 4.0 | 2승 |
| 7 | 롯데 | 24 | 27 | 2 | 0.471 | 4.5 | 2패 |
| 8 | KIA | 22 | 32 | 1 | 0.407 | 8.0 | 2승 |

‘심판 판정 불만 항의 퇴장’

KIA 김상훈 ‘경고’ 서 감독 ‘벌금 100만원’

한국야구위원회(KBO)신상우 총재는 11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7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KIA의 경기에서 퇴장당한 KIA 김상훈과 서정환 감독에게 대회요강 벌칙 내규를 적용해 김상훈은 경고, 서정환 감독은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김상훈은 0-1로 뒤진 7회 6번주 1루수의 스윙 관망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방망이를 덕아웃 쪽으로 내던진 뒤 퇴장당했고, 서 감독도 이에 강력 항의하며 모자를 집어던지고 덕아웃에서 배트를 부수는 등 거친 행동으로 역시 퇴장당했다. 윤 시즌 감독 퇴장 1호.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올스타전 부산서 개최

‘구도(球都)’ 부산에서 3년 만에 ‘별들의 전쟁’이 펼쳐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월17일 열린 2007프로야구 올스타전 개최지로 부산 사직구장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사직구장에서 올스타전이 열리는 것은 2004년 이후 3년만에 개최지를 놓고 고심했던 KBO는 최근 폭발적인 부산의 야구 열기를 크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리틀구장 세워 초등야구 활성화 주력”

김우현 광주시야구협회장

“광주 지역 야구 열기를 하나로 묶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제14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개막 격려사를 한 김우현(40) 광주광역시야구협회장은 광주지역 야구발전을 위해 ‘리틀야구장 건립과 KBO총재배 초등야구대회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틀야구장 건립과 초등야구대회 개최를 통해 야구 체험 기회를 확대해 야구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광주를 야구의 메카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19일 취임한 김회장은 “최연소·선수출신”이라는 두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김회장의 나이는 만40세. 다른 지역 야구협회장들이 50대를 훌쩍 넘긴데 비하면 상당히 젊은 편이다.

“처음에는 전국 최연소 협회장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광주일고의 대통령배 우승 등 우리 지역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회장은 동성중·고를 거쳐 성균관대 재학 때인 1989년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 태극마크를 달았고, 삼성과 해태에서 프로 생활을 했던 야구선수 출신이기도 하다.

김회장은 “땀흘리며 그라운드를 뛰었던 야구 선배로서 선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웨딩 컨벤션 대표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협회를 운영하고, 선수들을 이해하는 친근한 회장으로 광주지역 야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대회, 한국야구 발전에 한몫”

김대권 대한야구협 기술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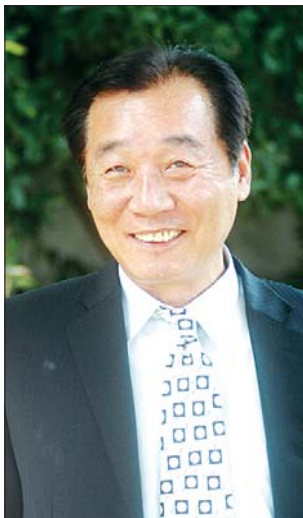
“늘 광주에 오면 고향을 찾아온 것 같이 포근한 기분이 듭니다”

특히 그는 83년 대통령배 결승 전날 선수들을 크게 혼낸 기억이 난다며 “당시 선수들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는데 선수들이 팬을 만나다 적발돼 대표로 주장·에이스·4번 타자를 불러 단단히 혼을 냈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제 14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 임원으로 광주를 찾은 김대권(57) 대한야구협회 기술위원은 “한국야구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무등기야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출신인 김위원은 1983년 연고도 없는 광주에 와서 광주일고 야구부의 사령탑을 맡아 대통령배·봉황기·황금사자기의 우승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선수시절 포수로 큰 빛을 못 봤지만 야구 명문으로 꼽히는 광주일고·천안북일·덕수고·휘문고·경



기고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으니 운이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감독으로서 첫 우승을 안겨준 광주일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